

광주 시내버수도 '고유가 직격탄'

市, 올 100억 추가 부담해야 할 듯

지원금 재정부담 눈덩이...요금 인상 우려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광주시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광주시는 시내버스 지원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해 국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여의치 않을 경우 결국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업계 재정지원금으로 모두 170억원을 편성했으나 하루가 다르게 뛰는 기름값으로 인해 100억원을 추가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00억원이 추가 지원되면 올 재정지원금은 지난해 163억원에 비해 65.6%나 늘어나게 된다.

재정지원금이 급증한 것은 지난해 재정지원금 편성 당시 1당 1천200원 대였던 경우값이 최근 1당 1천900원 대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지난해 광주 시내버스(900대)의 1일 연료비가 7천800만원이었으나, 최근 경유가가 폭등하면서 1일 연료비가 9천300만원으로 크게 오른 데다 지난해 하반기 연료비 증가 보전 비용까지 겹쳐 순수 연료비만 1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여기에다 올 시내버스 기사들의 임금이 타시도의 인상분과 비슷한 2% 대로만 올라도 인건비만 17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를 비롯해 대전, 대구, 부산 등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도시들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대도시 실무협의회'를 구성, 정부에 재정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준공영제 도입을 권장한 부처가 건교부였기 때문에 현재 연간 35억원인 정부 지원금을 크게 늘려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새 정부들이 소관 부처가 국토해양부로 재편된 데다 준공영제를 맡은 현행 부서조차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해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정부 지원 없이 유가의 고공행진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경우 시내버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 물가고에 시달리는 서민가게를 압박하는 또 다른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정부의 물가억제 방침에 따라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지만, 재정압박이 가중될 경우 버스 요금 인상이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무엇보다 치솟는 기름값을 보전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명구조 훈련 26일 오후 광주시 서구 유덕동에서 열린 '2008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에서 시 소방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저지대 주택침수 상황을 가정해 인명구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진과 풍수에 등에 대비해 실시한 이번 훈련은 광주시와 5개 자치구, 25개 유관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서울 등 대규모 촛불시위 검·경, 사법처리 수위 고심

검찰과 경찰이 최근 촛불문화제가 잇따라 불법 거리시위로 변질된 것과 관련해 엄정 대처하기로 원칙을 정했지만 구속영장 청구 등 체포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26일 "불법 집회는 법에 따라 주동자는 물론 선동하거나 배후조종한 사람까지 끝까지 검거해 엄정히 처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경찰은 24~25일 촛불문화제 본행사 끝난 뒤 심야에 도심에서 거리시위를 벌인 67명을 현재 조사 중이다. 이들은 남성 60명, 여성 8명이며 직업별로는 회사원 17명, 대학생 12명, 대학원생 2명, 교직원 2명, 자영업 15명, 무직 17명 등으로 파악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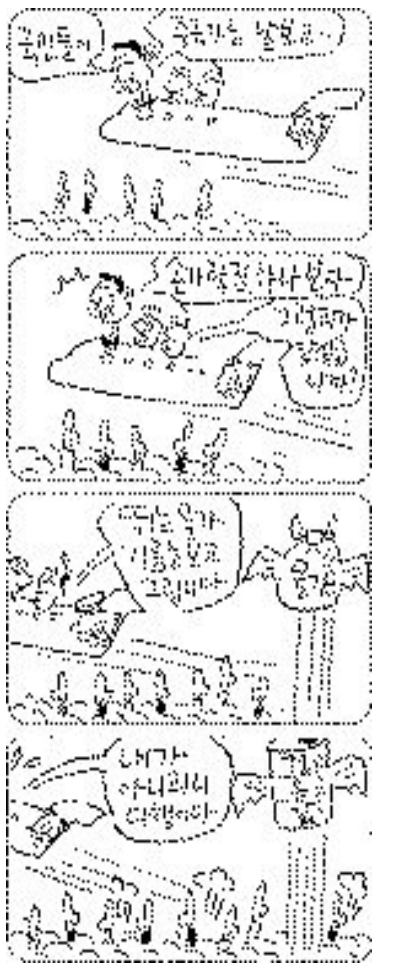
수사 당국은 불법행위를 주도한 사람을 가려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지만 대다수가 단순 시위대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영장 청구 대상자를 가려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6일 오후에도 서울을 비롯, 광주 등 전국에서 대규모 도심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1천7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7시 서울 청계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광주에서도 이날 오후 7시부터 광주 금남로 삼복서점 앞과 전남대 체육관 앞에서 촛불집회가 열렸다.

광주동부경찰은 시내인테리어 사업에 투자를 하면 임금의 두 배 이상을 보장해준다고 투자자 수천 명을 모집해 3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안모(35·서울시 구로구)씨를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공병 김모(42)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도주한 이모(39)씨를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일당은 ㈜L코리이라는 불법 유사수신행업체를 개설하고 지난 2005년부터 7개월 동안 1천5백여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나원침 (7516) 김장동



"투자하면 두 배" 30억원 가로채

투자금의 두 배 이상을 벌게 해주겠다고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광주동부경찰은 시내인테리어 사업에 투자를 하면 임금의 두 배 이상을 보장해준다고 투자자 수천 명을 모집해 3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안모(35·서울시 구로구)씨를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공병 김모(42)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도주한 이모(39)씨를 전국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일당은 ㈜L코리이라는 불법 유사수신행업체를 개설하고 지난 2005년부터 7개월 동안 1천5백여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인당 270만원에서 2천만원을 받아왔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에 업체 본사를 두고 서울과 광주 등 5곳에 지역센터를 개설해 조직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으며, 1구좌당 270만원을 투자하면 일주일 안에 2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6개월 뒤에는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 일당은 짧은 시간에 많은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 주로 노인들과 50~60대 가정주부를 상대로 일 같은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투자자에게 일부 수당을 지급해 안심시킨 뒤 고액의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 중의 건축·산업지대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착각 및 상담관행**

▶ 사물포시 : 02) 3445-0943
▶ 나주공관 : 061) 337-0571

저온창고 갈린 모녀 11시간만에 구조

○냉장고나 다름 없는 저온 창고에서 11시간 가량 갇혀 있던 모녀가 극적으로 구조.

○26일 광주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식품 자재를 납품하는 A(여·65)씨는 딸(32)과 함께 지난 25일 오후 3시께 북구 용봉동에 있는 식품 보관 저온 창고에 업체에 납품할 껌을 가지러 갔다가 창고 문이 닫히는 바람에 꼼짝없이 갇혔다는 것.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후 혹시나 하는 마음에 11시간이 지난 26일 새벽 2시께 문체의 창고로 갔는데 A씨 모녀가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발견.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 관계자는 "A씨 모녀는 발견 당시 저온의 창고에 오랜 시간 갇혀 있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특히 A씨는 저체온증이 심했다"라며 안도의 한숨.

자격 상실 공무원에 9년간 급여

나주시 얼빠진 행정...대출금 1억도 배상할 판

음주·횡소나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나주시 공무원이 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되지 않은 채 무려 9년동안이나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 공무원이 퇴직금을 담보로 1억원의 대출까지 받는 바람에 금융기관이 나주시를 상대로 대출금 반환소송까지 제기, 나주시가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지난 2006년 퇴직한 나주시 공무원 이모(당시 6급)씨는 지난 1997년 6월 24일 음주운전과 횡소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형사입건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씨는 금고 이상인 집행유예형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된다.

그러나 나주시는 대법원 확정판결

이씨는 또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은행측은 나주시가 발급해 준 공무원증과 나주시장 명의의 용자추천서를 믿고 대출을 해주었다며 나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25일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

나주시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항소심 승소 가능성이 희박해 대출금 1억여원(이자 포함)을 은행측에 배상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은행측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확인없이 자격 상실 공무원에게 무려 9년동안 급여를 준 것이다.

이씨는 당연 퇴직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2006년 6월 30일 퇴직 때까지 나주시로부터 3억원 안팎의 급여를 받았으며, 퇴직 이후인 지난해 9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3천900만원과 명퇴금 2천400만원 등을 지급받았다.

영광군수 보궐선거
선거운동원끼리 폭행

다음달 4일 군수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영광군에서 선거운동원들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영광경찰은 26일 영광군 영광읍 시장 앞에서 A후보 측 선거운동원과 B후보 측 선거운동원 사이에 폭행 사건이 벌어졌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세 장소에서 서로 확성기 소리 등을 낮춰 달라고 하며 언쟁하는 과정에서 A후보 선거운동원이 B후보 측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내연녀 살해 후 음독 자살

다른 남자와 사귀는 이유로 내연녀를 살해한 5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6시께 동구 계림동 이모(59)씨의 집에서 이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한 이웃 주민이 신고했다. 이씨의 방에 있는 내연녀 황모(43)씨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씨의 방에서 절반 가량 들어있는 농약병과 사망한 황씨 목에 난 상처 등으로 미뤄 이씨가 황씨를 운동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주)세종투어
062) 222-2209

아름다운 추억이 남는 알차고 특별한 6월 여행

SEJONG TOUR TRAVEL FRANCHISE

<p>★대학생 특가 상품★</p> <p>1인당 ₩169,000 (02)</p> <p>30명 이상 학생단체</p>	<p>대중투어 패키지</p> <p>₩369,000</p> <p>₩379,000</p> <p>₩389,000</p>
<p>한정판 제주 '우도 TOUR'</p> <p>₩145,000 (02)</p> <p>인원 1인당 ₩145,000</p>	<p>제주에서 즐기는 '신선도 리조트 오토 투어'</p> <p>₩350,000 (02)</p> <p>₩250,000 (02)</p>

이날이 성명준 2년동안 1년에 1회씩은... (small text at the bottom)